

2007. 12. 7(金)

第166回 束草市議會(第2次 定例會)

市政質問 答辯書

1.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검토사안
(김진기 의원 → 시 장)
2.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 논의 공론화를 위하여
(김성근 의원 → 시 장)
3.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 조속 추진
(김성근 의원 → 부시장)

束 草 市

市政質問 答辯書

質問의원	김진기	소관부서	중앙시장활성화팀
제 목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검토사안	답 변 자	시 장
< 질문요지 > 1. 취임 후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을 왜 그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는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이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2.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본 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체 실시한 조사결과가 있는지? 3. 알려진 중앙상가 2층에 새로운 마트 개점, 교동지역에 대형 마트의 개점 계획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4. 대형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 일반시민, 상인, 대행 상인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이 있는지? 5. 금호동민들로부터도 동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프로젝트팀으로 운영 중인 중앙시장활성화팀의 5급 담당관에 대하여 조속한 금호동장 복귀를 요망하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활성화팀 업무를 직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속초발전추진단으로 이관시킬 의향은 없는지 ? 6. 생모리츠와 중앙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재래시장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텐데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추진계획은? 7. 중앙시장로 양방 통행이후 오후 4시 이후부터 6시30분까지 차량교행이 힘들고 정체현상으로 시장방문객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키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 답변내용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우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진기 의원님께서 재래시장을 아끼는 각별한 심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고민을 해주신 점에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게된 배경과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과거 60 ~ 80년대 초까지 수산업과 관광업을 바탕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그에 따라 시장도 영랑동, 중앙동, 청학동, 청호동 등 권역별로 크고 작은 상권이 형성되고,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수산업의 쇠락과 아파트 중심의 도심형성으로 중소형 마트가 생성되고, 소비환경과 패턴변화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형 재래시장은 소멸되고 유일하게 중앙동 재래시장만이 서민경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2000년대부터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E-마트 등 대형 마트의 입점으로 서민경제의 터전인 재래시장이 위축됨은 물론 자본의 역외 유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기능이 상당히 큰 실정입니다.

또한, 남쪽으로 도시가 발전함으로서 중앙로를 비롯한 북부권의 경제는 도심 공동화와 함께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민선 4기 시정의 제일과제는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역점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대형주차장, 어물전캐노피, 상가지하 환경정비를 완료 하였고,

금년도에는 닭전캐노피, 2층 하나로마트 입점과 중앙상가 에스컬레이터 등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사업추진에 따라 시장 환경이 개선되고 상인 의식변화는 물론 시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등 매출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동로와 동화장길에 빛의 거리를 조성하고 관광야시장이 자리를 잡게 되면 재래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아직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사결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요구되는 사항은 첫째 상인들의 마인드 변화이고, 둘째는 시설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날이 변화하는 소비계층과 소비 환경, 소비 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상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의 교육실적은 2006년도에 전국 1,700여 재래시장중 시범시장으로 선정되면서 3개월 과정의 상인대학을 개설 165명이 졸업을 하였으며, 맞춤형 교육 14회 1,320명이 수강하였으며, 우수시장 견학도 4회 250명이 다녀온바 있으며,

2007년에도 위탁교육 7회 228명, 우수시장 견학 3회 94명이 다녀오는 등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과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시민과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5년 12. 8~12. 27(20일)까지 929명(시민 659명, 상인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에도 2회(2. 7~2. 13 : 484명, 8. 4~8. 7 : 555명)에 1,0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동기는 저렴한 가격(60.6%), 취급상품의 다양성(12.1%), 접근의 편리성(12.1%), 친절/서비스(6.1%), 편리한 주차시설(6.1%)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는 화장실, 주차장, 휴식공간, 통로확장, 안내판 등이 개선되거나 확충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市에서는 시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중앙상가 2층에 새로운 마트가 개점되고, 교동지역에 대형 마트 개점 계획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상가 2층은 의류, 식당, 수선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172개 점포중 96개(56%)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상가 2층에 입점하는 속초농협 매장은 재래시장에서 영업을 하던 마트(110평)로 농협에서 중앙상가 2층 300여평을 매입, 기존 매장을 확충,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 마트가 상가 내부로 입점하게 되면 쇼핑환경 개선과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속초농협 하나로 마트 신축계획은 속초시 교동 673-1번지 일원(소방서 맞은편)에 부지 10,500㎡(3,176평), 지상 1층(연면적 3,000㎡, 90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당초 영북지역에 농산물유통센터가 없어 농산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판매장과 부수적으로 하나로 마트를 배치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로 마트가 대형화하여 개점하게 되면 재래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초농협과 긴밀히 협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 대형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 일반시민, 상인, 대형 상인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은 지난 2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등록시장 상인회에서 1년간('07. 2. 16 ~ '08. 2. 15)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 주차장 조성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한편, 재래시장 이용 고객의 증가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 과정에서 주차요금, 서비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었으나, 지도 감독과 상인교육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그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차장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금호동민들로부터도 동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중앙시장 활성화팀의 5급 담당관의 금호동장 복귀 여론과 관련하여 중앙시장 활성화팀 업무를 속초발전추진단으로 이관 여부와 이관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과 중앙로가 속해 있는 금호동은 우리지역 경제의 산실이고 서민경제의 터전이면서,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市の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살리기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할 시정의 제일 과제인 것은 의원님들도 절실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빠른 시간내에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중앙시장 활성화」라는 테스크 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고, 금호동장의 겸임 배치는 물론, 유능한 직원들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사업과 중앙로 「설악 관광·쇼핑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재래시장은 전국 1,700여 재래시장 중에서 시범시장으로 선정되고 사업비 30억 여원을 지원받았으며, 「설악 관광·쇼핑거리」 조성사업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범도시로 선정되는 등 그간에 노력한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과 성과들이 단순히 금호동장의 공석이라는 시각으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시장활성화팀은 재래시장은 물론 중앙로 「설악 관광·쇼핑거리」 조성사업 등 금호동 살리기의 총체적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팀으로 금호동사무소와의 연계성을 비취 볼 때 타 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인원이 추가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중앙시장활성화 담당관과 금호동 주무담당은 전·후임 지역경제 담당으로 상호 보완적인 공동의 노력으로 이 지역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특히, 금호동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임홍빈 주무담당은 관재, 혁신, 기획담당 등 市의 주요중책을 맡아 많은 성과를 일궈낸 경륜과 능력을 겸비한 공무원으로

洞 직원들의 화합과 결속을 바탕으로洞행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洞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되리라 생각하며,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와 중앙로「설악 관광·쇼핑거리」조성사업 등 금호동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조기 완성되어 지역의 경기 회복 등의 성과들이 정착되어 팀의 기능을 축소하여도 가능한 시기가 도래 되면, 적절한 방안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생모리츠와 중앙재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재건축조합은 1995. 12. 15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2004. 2. 20일 착공, 35% 정도 공사 진행중에 2007. 5. 23일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호재건축조합에서는 공사재개를 위해 새로운 시공사를 물색하여 2007. 11. 15일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주)정우개발 산업으로 시공사 변경 결의가 되어 시공사 변경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어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향후 조합 및 시공자가 우리시에 시공사 변경 신청시 우리시에서는 이와 같은 공사중단을 대비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시공사로 하여금 시공보증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재건축조합은 1995. 12. 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나, 재건축사업 승인인가, 시공사 선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채 11년이 경과됨에 따라 조합 및 조합원들의 조합설립 취소요청이 있어 2007. 7. 24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재건축 예정부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관계로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고, 주민들은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에서도 그렇듯이 채산성이 부족하면 공사가 가시화 되지 않고 담보상태가 됩니다. 이를 해소코자 우리시에서는 중앙동 재개발사업 예정 부지에 대해 층고제한 완화, 사업예정 부지에 접한 기반시설 설치, 주민이 제안한 정비구역 지정 등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재개발조합 설립은 주민들 스스로 결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1군 업체에 버금가는 시공사 선정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공자가 재개발 사업성을 검토하여 사업 의지가 최종결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등 중앙동 재개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중앙시장로 양방 통행이후 오후 시간대에 차량교행이 힘들고 정체현상에 대한 해소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양방향 통행을 실시하게 된 계기는 “2004년 3월 속초시재래시장 특성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결과” 중앙로에서 중앙시장 진입불가 및 중앙가로 일방 통행/노상 유료주차장으로 인하여 고객차량 접근성이 열악하고, 상권 확대 및 영업 활성화에 저해되어,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양방향통행을 건의함에 따라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속초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 2006. 7월 양방향 통행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시장로 양방향 시행후 중앙로에서 중앙시장으로의 진입이 용이해져 중앙시장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질의하신바와 같이 시장 특성상 일부 특정시간대에 양방향 통행에 따른 차량 유입량 증가, 중앙시장로변 불법 주정차, 도로상 만성적인 노상적치물 적재 등의 요인으로 차량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市에서는 중앙시장로 차량 정체현상 해소를 위하여 국민은행 앞, 중앙시장 4거리에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를 설치하여 주변에는 교통 장애가 없으나, 촬영이 불가능한 시장로 중앙부분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정체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장 특성상 타지역과 달리 탄력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강력한 행정지도·단속뿐만 아니라 중앙시장로변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없이 불가능하므로 중앙상가 상인회, 중앙가로 상인회와의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통하여 상가 화물차에 대하여 물건 상·하차후 대형 주차장 및 지하 주차장으로 주차토록 협의, 추진하였으나, 도로 양편의 일부 상인들의 미참여로 중단되어 현재 이동식 CCTV를 전담으로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 9월 이동식 CC-TV를 중앙시장에 전담배치 강력한 불법 주정차단속으로 차량흐름이 원활해져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11월 중순부터 김장시장 개장으로 대형 화물차 유입 및 채소류의 노상 적치량 증가로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성상 강력한 단속보다는 지도에 중점을 두고 계도를 하고 있어 최근 정체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나, 김장철이 종료되는 12월 중순부터 지속적인 지도·계도를 통하여 양방향 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주변상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중앙시장을 찾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교통체계의 개선 및 항구적인 교통시설물 설치를 통하여 차량 정체현상을 해결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재래시장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홍우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진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市政質問 答辯書

질문의원	김 성 근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제 목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 논의 공론화를 위하여	답 변 자	시 장
< 질문요지 > 다음은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 먼저, 우리시를 비롯한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 2000년부터 수년째 관광·상경기 침체, 수산업 부진 등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당면 지상과제로 봉착하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 지난 94년과 95년 인근 군과의 통합을 추진할 때와 비교할 때 주민의식 등 제반 여건이 호전된 만큼,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을 통한 영북권 지역의 공동발전과 장래를 위해 행정·각 지역의 정치권·시민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기능수행이 점화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3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 첫째, 2005년 이후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해 추진한 사항은 있는지, 향후 시·군과 본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의향은 있는지? — 둘째, 집행부에서 인근 시·군과의 통합의지가 있다면 그 절실한 필요성은 무엇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위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마지막으로,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인근 시·군과의 통합 추진이 각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소극적 자세로 말미암아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 답변내용 >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난 94년과 95년 2차에 걸친 인근 양양군과의 통합추진에서 속초시의 경우 1차 의견조사시 95.7%, 2차 의견조사시 94.1%라는 절대적 찬성이 있었지만 양양지역에서 1차 의견조사시 83.6%, 2차 의견조사시 79.6%의 주민이 반대하여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산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10만 속초시민은 아직도 아쉬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은 같은 생활권내 인접한 시와 군을 하나로 묶어 서로 부족함을 보완하면서 강점을 최대한 살려 자치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 특히, 우리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은 오랫동안 동일 행정권, 같은 생활권에 속해 있으면서 역사적 동질성을 공유하여 왔으며 설악권을 중심으로 환동해 핵심부에 위치해 발전 잠재력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크기 때문에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와 통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대두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 다만, 1995년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된 이후 지역주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팽배한 현실에서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문제는 어느 한쪽이 원한다고 해서, 추진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될 사항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통합하고자 하는 양측 주민들의 공감을 토대로 신중하면서도 사려깊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5년 이후 인근 시·군과의 통합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 시·군과의 통합문제는 관련 주민들의 정서·동질성 문제 그리고 오랜 역사적 전통 등과 맞물려 있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여론 선도계층인 의회, 각급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공식·비공식 접촉채널을 적절하게 활용해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다지면서 한편으로는 통합하고자 하는 지역과 하나의 동일한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유기적 연관성을 강화하여 통합에 대한 절실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와 차원은 다소 다르지만 매년 정례적으로 설악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프로젝트 등을 발굴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면서 공동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고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제1회 4개 시·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와 이·통장한마음대회·의용소방대 연합대회를 개최하여 화합과 우의를 다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질문에서 언급해 주셨듯이 지금 속초시는 어업 기반의 상실·관광활성화 담보·제조산업의 취약·일거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의 지속적 감소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 특히, 市 면적이 좁고 市 전체면적의 64%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개발을 하려 해도, 각종 관광·제조산업을 지역내 유치 하려 해도 가용부지가 없어 발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발전기반 확충과 인구증대 등을 통해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같은 생활권내 인근 시·군과의 통합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면서 균형있게 발전시켜 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요소인 지역 이기주의·연고주의·피해·소외의식 등을 불식시키면서 통합을 희망하는 지역이 하나의 동일한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유기적 연관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므로써 통합에 대한 절실성을 높여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통합에 관한 문제는 속초시에서 필요하다고 주도하기 보다는 상대지역에서 먼저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주는 일이 무엇보다 선결과제라 생각 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근 시·군과의 통합문제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세가 약한 지역의 입장에서 볼때, 흡수 통합되면 소위 혐오시설만 들어오고 세부담이 늘어나며 지역개발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피해·소외의식 등이 강하게 팽배되어 있어 통합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 일례로 최근 전남 여수·순천·광양지역과 청주·청원지역의 경우 통합을 적극 추진했으나 인구·지역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광양시와 청원군이 통합에 반대하면서 무산 내지는
답보상태에 있는 경우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당장 통합을 추진하자는 급진적 생각보다는 주민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피해·소외의식을 불식시키면서
- 통합을 원하는 지역의 각급 시민·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가면서 범통합 여건이 성숙
되었다고 판단될 때 원만한 합의 등을 통해 역사적 과제로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김성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市政質問 答辯書

질문의원	김 성 근	소관부서	도시과
제 목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 조속 추진	답 변 자	부시장
[질문요지] ○ 군부대 이전에 관한 추진사항, 향후계획, 군부대 기본입장, 협의 부진사유 ? ○ 이전 후 청학동 지역 등 주 도심의 도시개발 방향 ?			
[답변내용] ○ 평소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심은 물론 주민들의 민의를 바르게 전달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 군부대 이전에 관한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그리고 군부대의 기본입장 및 협의 부진사유 ? ▶ 두번째로 이전 후, 청학동 지역 등 주도심의 도시개발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 본 사항은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과 함께 ▶ 2004년 4월과 2006년 9월에도 이전을 촉구하시는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 ▶ 다만 관련 부대가 특수 목적의 부대로서 군사적 보안문제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군부대의 기본입장과 부진사유입니다.

- ▶ 주 도심에 군부대가 위치하여,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전을 바라는 여론이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팽배한 상황에서,
- ▶ 우리 시에서는 이전과 동시 도심의 새로운 개발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획기적인 개발촉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 ▶ 2004. 2. 2 관할부대인 정보사령부에 이전을 건의 하였으나, 사업비를 비롯한 이전지 시설에 대하여 이건의 폭이 커서 그동안 추진이 부진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 ▶ 그러나 군부대의 이전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시 주 도심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최대 현안 과제중의 하나인 만큼,
- ▶ 민선 4기 들어 우리시 “ 100대 중점추진과제 ” 로 선정하여 이전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관련 부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착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 ▶ 그동안 추진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 ☞ 2006. 10. 23 관련 부대와 재협의를 시작으로
- ☞ 실무진의 법령 재검토, 타 자치단체 방문을 통한 이전사례 수집 등을 실시하고,
- ☞ 2006. 12. 4 국방부를 방문하여 이전방안 협의와 협조 요청을 하였고,

- ☞ 2007. 1월 ~ 현재까지 6회에 걸쳐, 관련 부대에 대한 협의와 추구를 지속적으로 함과 동시에,
- ☞ 시장님께서 군부대 방문을 통한, 각급 부대장과 대면협의를 수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 ▶ 그 결과 군부대의 현재 기본 입장은 우리시가 주장하는 이전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상호간 합의각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보고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주신 군부대 이전 후 청학동 지역 등 주 도심의 도시개발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 군부대 이전사업은 착수하여 대체시설 제공한 후 토지를 양여받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개발의 성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 ☞ 본 사업이 가시화 되면, 군부대 부지를 포함하여 주 도심의 개발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용역을 실시하고,
- ☞ 시민이 공감하는 절차를 거쳐 혁신적인 개발방안이 수립 되도록 하겠습니다.
-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 지금까지 주셨던 많은 고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